조선일보 - 1937. 11. 27/ 5면/ 8단

現代人의 倫理的 性格

倫理의 두 가지 典型 (3)

金午星

그러면 人類的 倫理란 어떤 것인가? 社會的 倫理는 그들의 生活習慣에서 생겨지나 人類的 倫理는 非凡한 個性의 說話나 人格的 偉大에서 일어진다. 印度의 阿羅漢, 이스라엘 豫言者, 希臘의 古賢, 基督敎의 聖者 等의 道德이 그것이다. 社會的 倫理는 一定한 格率을 一般人이 受容하는 것이나, 人類的 倫理는 어떤 非凡한 個性, 즉 道德上의 英雄을 模範하는 것이다. 人類的 倫理는 오직 非凡한 個性에서만 그 完成을 보게 된다. 그러나 聖者는 命令하지 안는다. 오직 絶叫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人間은 이 聖者를 따르며 그 神秘的 感化力에 마음이 열닌다. 閉鎖된 마음은 自己 밋 自己가 사는 社會와의 共同維持 目的으로 하는 習慣에 依하야 움즉이는 것이나, 開放된 마음은 人類 全體를 抱擁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禽獸草木 等 自然 全體를 抱擁한다. 社會的 倫理는 自己 社會를 爲하야는 他社會를 憎惡하며 그와 鬪爭을 계속하는 것이나, 人類的 倫理는 全體를 抱擁하는 愛가 잇슬 뿐이다. 社會的 倫理는 한 개의 自然法으로서 各人이 거기에 따르기를 强要하는 것이나, 人類的 倫理는 獲得되는 것으로 各人에게 努力을 要求한다. 聖者는 命令하지 안코 모두를 自己와 가티 놉피며 自己와 同等이 되기를 願한다. 베륵손[베르그송]은 道德的 感情을 二種으로 區分햇다. 하나는 感情이 한 개의 觀念으로서 表象의 계속이며 表象에서 喚起되는 感受性을 일음이다. 이러한 感情을 그는 知性 下의 感情이라고 햇다. 이 感情은 單히 表象된 것을 아무 選擇 업시 受容하는 感情으로 이러한 道德的 感情에서 社會的 倫理가 생겨진다. 달은 하나는 表象의 結果가 아니고 그 原因이 되는 것으로 모든 觀念을 生産하는 感情이다. 이 感情은 마치 音樂的 情緖와 가튼 것이여서 우리가 音樂을 듯는 동안에는 音樂이 暗示하는 것박게는 아무 것도 意欲할 수 업스며 音樂이 歡喜를 悲哀를 同情을 連次 나타냄에 따라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刻刻으로 나타냄과 가티 道德的 先輩의 淸新한 感情이 우리에게 管絃樂的 反響을

가저다 주는 것이다. 조흔 音樂이 通行人을 딴스[댄스]에 끌어너흠과 가티 놉흔 道德的 感情은 모든 사람들을 놉흔 倫理的 行爲에 끄러 너는다. 이러한 感情은 普通 心理學이 생각하는 바와 가튼 知性의 附屬物이 아니고 모든 觀念의 創造的 源泉이다. 이 感情은 一定不變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藝術界, 道德界의 天才에 依하야 淸新히 되며 創造된다. 科學, 藝術, 文明의 偉大한 創作의 起源에는 이러한 淸新한 情緖가 잇다. 새로운 思想, 새로운 道德의 直前에는 한 개의 情緖가 잇다. 이 情緖가 意志에의 發展에서 哲學이 된다. 그리고 慈愛의 精神에 浸透하야 宗敎的 說話가 된다. 이러한 道德的 感情에서 人類的 倫理가 생긴다. 道德界의 聖者, 改革家들은 이러한 創造的 情緖로서 몃 世紀 前에서 今日에 일으기까지 모든 人間의 倫理的 生活을 指導해왓다. 그들은 實로 人類 全體를 거닐고 섯는 武勳赫赫한 戰勝將軍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自然의 抵抗이 問題되지 안코 自由는 한층 더 强化되여 人類를 豫想치 안흔 곳에 高揚시킨다. 모든 人間은 그들에게 感化되며 그들의 뒤를 따름으로서 生命의 創造力과 歡喜를 느낀다. 베륵손에 依하면 社會的 倫理와 人類的 倫理는 究竟 가튼 生命 發展의 두 가지 瞬間의 顯現에 不過하다. 즉 開放된 마음은 强制的 命令을 빌어 自己의 힘을 삼는 代身, 閉鎖된 마음은 開放된 前進的, 進步的인 것을 採用하야 自己의 固陋한 것을 修正하는 것으로 兩者는 相補하면서, 一便으로는 社會를 維持하며 他便으로는 個人의 創造的 自由를 强化시킨다는 것이다. 社會가 存在하는 限, 道德的 强制가 업슬 수는 업다. 그러나 社會는 그 自體만으로는 說明할 수 업다. 社會가 存在키 爲하야는 個人의 生得的인 모든 傾向을 거기에 가저올 必要가 잇다. 우리는 社會 가운대 貯蓄된 堆積을 파고 들어가 生命에까지 내려가지 안흐면 안된다. 우리가 社會의 밋바닥에 깁히 들어가면 갈수록 어째서 社會가 個人을 强制하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個人이 社會를 批判하며 變化해야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社會가 自足的이라면 그것은 最上의 構成일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生命의 一形式이라면 人類를 社會의 頂點에 두지 안흐면 안된다. 社會를 進化시키는 原動力은 生命이다. 그러므로 社會를 向上시키는 것은 人間을 强制하는 社會的 倫理가 아니요, 人間의 創造力을 發揮하는 人類的 倫理라는 것이다. (道德, 宗敎의 二源標 參照) 우리는 베륵손의 倫理의 二元說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從來의 倫理學은 오직 格率 즉 社會化의 倫理만을 對象으로 햇다.